

The Gospel of Mark

Sermon 66

Title: “A prediction of denial and a prayer”

Scripture: Mark 14:27-42

Date preached: December 10th 2023**Scripture: Mark 14:27-42**

27 Then Jesus said to them, “All of you will be made to stumble because of Me this night, for it is written:

**‘I will strike the Shepherd,
And the sheep will be scattered.’**

28 “But after I have been raised, I will go before you to Galilee.” 29 Peter said to Him, “Even if all are made to stumble, yet I *will* not *be*.” 30 Jesus said to him, “Assuredly, I say to you that today, *even* this night, before the rooster crows twice,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31 But he spoke more vehemently, “If I have to die with You, I will not deny You!”

And they all said likewise.

32 Then they came to a place which was named Gethsemane; and He said to His disciples, “Sit here while I pray.” 33 And He took Peter, James, and John with Him, and He began to be troubled and deeply distressed. 34 Then He said to them, “My soul is exceedingly sorrowful, *even* to death. Stay here and watch.” 35 He went a little farther, and fell on the ground, and prayed that if it were possible, the hour might pass from Him. 36 And He said, “Abba, Father, all things *are* possible for You. Take this cup away from Me; nevertheless, not what I will, but what You *will*.” 37 Then He came and found them sleeping, and said to Peter, “Simon, are you sleeping? Could you not watch one hour? 38 Watch and pray, lest you enter into temptation. The spirit indeed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39 Again He went away and prayed, and spoke the same words. 40 And when He returned, He found them asleep again, for their eyes were heavy; and they did not know what to answer Him. 41 Then He came the third time and said to them,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It is enough! The hour has come; behold, the Son of Man is being betrayed into the hands of sinners. 42 Rise, let us be going. See, My betrayer is at hand.”

27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28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 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29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자 30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셨다. 31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장담하였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였다. 32 그들이 겔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 하시고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며 34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셨다. 35 그러고서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의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빌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36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37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38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39 예수님이 다시 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0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몹시 피곤하여 또 자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몸둘 바를 몰랐다.

41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갈 때가 왔다. 42 일어나거라, 가자.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이 가까이 왔다.”

Review

Before we turn to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 us briefly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time.

We found ourselves on the Thursday of Passion Week. In terms of location we picked up the narrative with the Lord Jesus and the disciples in the upper room. They were there to celebrate the Passover meal together. The upper room of course was the setting for something far more significant. The Lord Jesus used this occasion to institute the Lord's Supper. From this time on believers could through observing this ritual enjoy intimacy with Jesus, remember what He did and look forward to His second coming. Let us look in more detail at this very first Lord's Supper.

The Passover meal as I stressed last week was much more than just an ordinary family meal. The meal progressed through eight symbolic or representative stages. Each stage was purposefully designed to draw the participants into the story of the Exodus from Egypt.

It is when they reach stage five of the meal that Jesus breaks with tradition. At this point in the meal the father, or the head of the family takes the unleavened bread, offers a prayer of blessing, breaks the bread and gives each person a piece. Normally what would happen next is that each person would in quiet reflection eat the bread. But here as I said Jesus breaks with tradition by speaking. He tells them that this bread represents His body. It was at this point just a matter of hours before He would be arrested, tried and then crucified. His precious body would be “broken” as He was tortured and nailed to the cross. This was no accident. This was not something that was unplanned. The Lord Jesus willingly submitted Himself to this. He allowed Himself to be broken for us. This means that from this point on when we eat of Him, or take Him into our lives and allow Him to transform us our sins are passed over.

Jesus then took the cup, this was stage seven of the meal. After giving thanks He drank and passed the wine to all the disciples. The wine of course represents our saviour's blood. If you've ever watched Mel Gibson's 2004 movie “The Passion of the Christ” you will have some understanding of just how visceral and bloody the execution of Jesus was. As an aside there are a number of serious theological problems with this movie, but it's treatment and depiction of the brutality of Roman execution is very good.

The Lord Jesus tells them that this act represents the new covenant signed and sealed though His blood. A covenant of course is an agreement or a contract made between two or more parties. So the Lord Jesus here is putting His signature to a new agreement between God and man. Only God can initiate such a thing.

The new covenant means that from this point on the forgiveness of sins, and ultimately salvation, will not come about through the sacrifice of animals. The blood of goats and bulls was only ever a temporary covering for sins. God only ever intended it to suffice for a time. He had a much better more comprehensive plan in mind. The plan's name was Jesus Christ. Now through the sacrifice of the God man we are once and forever covered. When we confess of our sins and put our faith in Christ we are saved, past, present and future.

The Lord Jesus tells them that He will not drink wine again until the time that all the elect are gathered to Him. Then we will have drink and feast together.

The episode concludes with them singing a hymn and going out onto the Mount of Olives. That is where we will pick up the story today.

오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고난주간의 목요일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함께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락방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신자들은 이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의 만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강조한 유월절 식사는 단순한 가족 식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식사는 8 개의 상징적, 대표적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각 단계는 참석자들을 이집트 탈출 이야기로 인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전통을 깨뜨리신 것은 그들이 식사의 5 단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식사 중 이 시점에서 아버지, 즉 가장은 무교병을 들고 축복의 기도를 드린 다음 빵을 떼어 각 사람에게 한 조각씩 줍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에 일어날 일은 각 사람이 조용히 생각하면서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심으로써 전통을 깨뜨리십니다. 그분은 이 빵이 그분의 몸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분이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분의 귀중한 몸은 “부러질”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되지 않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기꺼이 이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이 부서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시점부터 우리가 그분을 먹거나 그분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때 우리의 죄가 넘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 잔을 드셨습니다. 이것은 식사의 일곱 번째 단계였습니다. 감사를 드린 후에 그분은 포도주를 마시고 모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론 포도주는 우리 구세주의 피를 상징합니다. 멜 깁슨(Mel Gibson)의 2004 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The Passion of the Christ)”를 본 적이 있다면 예수의 처형이 얼마나 처참하고 피비린내 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담으로 이 영화에는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많이 있지만, 로마 처형의 잔혹함을 다루고 있는 묘사는 매우 훌륭합니다.

주 예수님은 이 행위가 그분의 피로 서명되고 인봉된 새 언약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언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합의 또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새로운 계약에 서명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이제부터 죄 사함과 궁극적인 구원이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는 언제나 죄를 일시적으로 덮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것이 잠깐동안 충분하도록 의도하셨을 뿐입니다. 그는 훨씬 더 포괄적인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 신-인간 God-man 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이 다 그분께 모일 때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우리 모두는 함께 마시고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감람산으로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그 이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7 Then Jesus said to them, “All of you will be made to stumble because of Me this night, for it is written:

**‘I will strike the Shepherd,
And the sheep will be scattered.’**

The Lord Jesus and the disciples left the upper room, exited the walled city of Jerusalem and began to climb the Mount of Olives. So this conversation occurred as they walked towards Gethsemane. This is the second of three predictions of failure given by Jesus. The first regarded Judas (verses 18-20). The second here concerns the disciples as a whole. Shortly we will read the third which deals with the prediction regarding Simon Peter (verses 29-31). It must have greatly saddened our lord and saviour to realise that His closest and most beloved companions would shortly abandon Him. Yet abandon Him they did.

The Greek verb used here for “stumble” is *skandalizō*. It may mean, depending on the context, "to stumble, fall, trip up, cause offence or to be displeased." Jesus then is predicting that upon His arrest all of them would scatter and flee. It is easy perhaps today to judge them harshly. To wonder why they were not more courageous and more supportive of Jesus in His hour of need. But the urge towards self-preservation is strong in all of us. When faced with real danger the fight or flight response kicks in. Most people for obvious and understandable reasons choose flight.

Jesus backs up what he says by quoting from the prophet Zechariah (13:7). He does this for two reasons. Firstly it demonstrates that His death, and even the disciples falling away is a part of God's plan. It's not an accident or something unforeseen. Secondly it shows how God always remains in complete control. That He is sovereign over all things. William Barclay in his commentary has the following passage;

“It is a tremendous thing about Jesus that there was nothing for which he was not prepared. The opposition, the misunderstanding, the enmity of the orthodox religious people, the betrayal by one of his own inner circle, the pain and the agony of the Cross--he was prepared for them all.”

How true that is. Nothing shocked or surprised our Lord. He knew that when He was attacked that His sheep would scatter. But He also knew that this would not be a permanent falling away. As we shall see in the next verse the lost sheep will later rally to their shepherd. Let us read on.

27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도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주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락방을 떠나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나가 감람산으로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대화는 그들이 겟세마네를 향해 걸어가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패에 대한 세 가지 예언 중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유다였습니다(18-20 절). 여기서 두 번째는 제자들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곧 시몬 베드로에 관한 예언인 세 번째 부분(29-31 절)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구원자 예수님은 그분의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동료들이 곧 그분을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저버렸습니다.

여기서 “버리다, 실족하게 하다”로 사용한 그리스어 동사는 *skandalizō* 입니다. 문맥에 따라 그것은 "걸려 넘어지다, 넘어지다, 기분을 상하게하다, 불쾌하게 하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체포되면 그들 모두가 흩어지고 달아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다. 오늘날 그들을 가혹하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왜 그들이 더 용기 있게 도움을 주지 못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충동은 우리 모두에게 강합니다. 실제 위험에 직면하면 전투 또는 도피 반응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백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로 도피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스가랴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말씀을 뒷받침하십니다(13:7). 그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그분의 죽음과 심지어 제자들의 배반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우연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항상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William Barclay의 주석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반대, 오해, 정통 종교인들의 적개심, 자기 측근의 배신, 십자가의 고통과 고뇌, 이 모든 것에 그분은 준비되어 있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께 충격을 주거나 놀라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공격을 받을 때 그분의 양들이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이것이 영구적인 배교가 아님을 아셨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잃어버린 양들은 나중에 그들의 목자에게로 모일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8 “But after I have been raised, I will go before you to Galilee.”

Even though the disciples will scatter at His arrest Jesus knows that they will not be permanently lost. He tells them here that they are to look beyond the pain and agony of His arrest and crucifixion. Of course this information does not register with the disciples, and they do not fully understand His words here.

It's good for us to remember that even though the horror of the cross loomed before Him Jesus was looking ahead to happier times. He was thinking of the time that they would be together once again. Following his death, burial and resurrection He will meet them in Galilee. Again this verse reminds us that Jesus knew exactly what would happen to Him. He knew that death could not hold Him. Let us continue.

28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비록 제자들이 그분의 체포로 흩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임을 아십니다. 그분은 여기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의 고통과 고뇌 너머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때 그분의 말씀을 제자들은 납득하지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비록 십자가의 공포가 그분 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행복한 시대를 내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함께 할 시간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계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죽음이 그분을 붙잡아둘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계속합시다.

29 Peter said to Him, “Even if all are made to stumble, yet I will not be.” 30 Jesus said to him,

“Assuredly, I say to you that today, *even this night*, before the rooster crows twice, you will deny Me three times.”

31 But he spoke more vehemently, “If I have to die with You, I will not deny You!”

And they all said likewise.

Jesus words must have hit the disciples hard. None of them wanted to think that after all they had been through together that they would at this moment abandon Jesus. Peter, who else speaks up, but as I have noted before he often acts as the spokesman for the whole group. At this particular moment he is full of confidence and bravado.

I don't suppose we are much different. It's an interesting thought experiment for believers living in a place in which Christian persecution is not an issue. But how do you think you would you react if you lived in a place where you could be arrested, tortured or even killed for your faith? How would you respond to a policeman pointing a gun at you and asking if you were a follower of Christ? We'd all like to think we'd answer boldly and faithfully. Yes, Jesus is my Lord and saviour, I am willing to die for Him. But until we find ourselves in that situation we cannot be sure.

So Peter doesn't think Jesus' words apply to him. He is very sure of himself. All the others might fall away but definitely not him. In this moment he had forgotten his own human weakness and the strength of the devil's temptations.

The Lord Jesus corrects him. Assuredly he says to Peter you will deny me. The word “assuredly” here is the word “amen,” meaning “surely” or “truthfully.” Peter may not believe he is capable of such a thing but Jesus knows better. Before the night is over he will deny him three times.

Sometimes we can have a little fun at Peter's expense. We find his outbursts and impetuous nature amusing. We roll our eyes and think, oh Peter! But we should never forget that for all his failings Peter's heart was in the right place. How much better to possess as Peter did a flaming heart of love than possess a cold heart of hate like Judas. Never forget that Peter truly loved Jesus, and even though temporarily his love failed, it rose again. He would go on from the shame of his public denial to faithfully serve and die for Christ's Kingdom. Let us read on.

29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자 30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셨다. 31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장담하였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이 모든 일을 함께 겪은 후에 지금 당장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베드로가 목소리를 내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그는 전체 그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에 그는 자신감과 허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독교 박해의 문제가 없는 곳에 사는 신자들에게 흥미로운 사고 실험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앙 때문에 체포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곳에 산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경찰이 총을 겨누며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담대하고 신실하게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시다. 나는 그분을 위해 기꺼이 죽겠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매우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과 악마의 유혹의 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를 바로잡습니다.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할 거라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확실히"라는 단어는 "확실히" 또는 "진실하게"를 의미하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은 더 잘 아십니다. 밤이 지나가기 전에 그는 세 번이나 그를 부인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베드로의 희생으로 약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의 폭발적이고 성급한 성격이 재미를 더합니다. 우리는 눈을 굴리며 생각하길 오, 베드로! 그러나 그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이 올바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처럼 미워하는 차가운 마음을 갖는 것보다 베드로처럼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더 낫습니까? 베드로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의 사랑은 비록 일시적으로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수치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충실히 봉사하고 죽을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2 Then they came to a place which was named Gethsemane; and He said to His disciples, “Sit here while I pray.”

Their walk ends at a place named Gethsemane. This was a place located on the lower slopes of the Mount of Olives. It was just east of the temple mount, and across the ravine of the Kidron Brook. Interestingly Gethsemane is mentioned specifically by name only twice in the Bible, though references to it are peppered throughout the New Testament. It was a place that Jesus travelled to and through frequently.

Gethsemane was renowned as a place where olives trees grew in abundance. It was also famous for its olive press. This is where the area gets its name, Gethsemane means “the place of the olive press” in Aramaic. It was where all of the neighbourhood olives would be taken and crushed for their oil.

It would have been a peaceful and quiet place especially after the noise and hustle of the Passover festival in Jerusalem. It was therefore an ideal place to find some solitude for prayer and reflection. It was also one of Jesus' favourite spots which was why Judas knew exactly where to find Him. The Lord Jesus as we shall shortly see was deeply troubled. It is at such times that we need to seek God in prayer. This is exactly what Jesus sought to do.

32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 하시고

그들의 걸음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끝납니다. 이곳은 감람산 기슭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성전 산의 바로 동쪽이자 기드론 시냇가 건너편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단 두 번만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만, 그와 관련된 언급은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드나드셨던 곳이었습니다.

겟세마네는 감람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올리브 압착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지역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을 얻은 곳입니다. 겟세마네가 아람어로 '올리브 압착기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동네 올리브를 모두 모아서 으깨어 기름을 만드는 곳이었습니

다.

특히 그 곳은 예루살렘 유월절의 소란과 소음을 피하기에 좋은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묵상을 위한 고요함을 찾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또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될 주 예수께서는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는 괴롭고 힘들 때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다.

33 And He took Peter, James, and John with Him, and He began to be troubled and deeply distressed. 34 Then He said to them, “My soul is exceedingly sorrowful, *even* to death. Stay here and watch.”

Leaving eight of the disciples at the entrance to the garden he took His inner core of Peter, James and John with Him into the garden. He felt an acute need at this time for their prayerful support and companionship. How all of us need good friends and prayerful support in times of distress or trouble. The two verbs that Mark uses here “troubles” (*ademonein*) and “deeply distressed” (*ekthambeisthai*) when combined express an extreme form of emotion. The Lord Jesus knew what was coming. Certainly, He agonised in His human nature over the physical torture and humiliation He must endure. None of us like pain, but the pain of death by crucifixion is pain in the extreme. It's pain on steroids!

But the spiritual horror of the cross was an even greater burden for Him to bear. The fact that He must take on sin, and in doing so be separated from the Father. It was the fact that He would be forsaken by God the Father that distressed Him most. He tells the disciples that His heart was unimaginably burdened, almost to the point of breaking. Luke in his gospel gives us a very telling detail about the great anguish Jesus was enduring. Let me read Luke 22 verse 44.

And being in agony, He prayed more earnestly. Then His sweat became like great drops of blood falling down to the ground.

Luke who was a medical doctor is the only gospel writer to include this significant detail. There has over the centuries been much debate as to what he actually means. You may be interested to learn that there is a rare disorder called Hematidrosis (Hem-at-id-rosis). It can occur when people are under extreme stress. Let me explain what happens. Tiny capillaries within the sweat glands rupture and blood begins to mingle freely with sweat. It appears to onlookers as if the person is sweating blood. This is how a medical doctor explains the phenomenon.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며 34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셨다.

그분은 제자들 중 여덟 명을 동산 입구에 남겨두고 핵심 측근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그들의 중보하는 기도와 함께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좋은 친구와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마가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두 동사 “힘들어하다 troubles” (*ademonein*)와 “심각하게 괴로워하다” (*ekthambeisthai*)를 결합하면 극단적인 형태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주 예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습니다. 확실히 그분은 자신이 견뎌야 할 육체적 고문과 굴욕에 대해 인간의 본성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고통을 좋아하지 않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은 극한의 고통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통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영적인 공포는 그분이 짊어져야 할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짊어져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거의 부서질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께서 견디셨던 큰 고통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 장 44 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러자 그분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변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록한 유일한 복음서 작가입니다. 그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수세기에 걸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혈행증(Hem-at-id-rosis)이라는 희귀 질환이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땀샘 내의 작은 모세혈관이 파열되고 혈액이 땀과 함께 섞이기 시작합니다. 보는 사람에게는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의사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Around the sweat glands, there are multiple blood vessels in a net-like form. Under the pressure of great stress the vessels constrict. Then as the anxiety passes the blood vessels dilate to the point of rupture. The blood goes into the sweat glands. As the sweat glands are producing a lot of sweat, it pushes the blood to the surface - coming out as droplets of blood mixed with sweat.” (Dr. Frederick Zugibe)

It magnificently explains in ways we can hardly conceive just what a time of great mental torture this was for the Lord Jesus.

Jesus commands Peter, James and John to stay and watch. The word Mark uses here for "Watch" is from the Greek root *gregoreuo*. It means, "to pay attention in order to avoid calamity." Jesus knows that their watching can't prevent the crucifixion. He knows exactly how things will unfold. So it's not really Jesus telling them to watch out for Judas the betrayer but rather that He wants them to be "vigilant" and support him in his hour of agony. We might also see in this command to "watch" echoes of the same theme that ran throughout the Olivet Discourse; the demand for spiritual vigilance.

“땀샘 주위에는 그물 모양의 여러 혈관이 있다.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된다. 그러다가 불안이 지나가면서 혈관이 파열될 정도로 확장된다. 피는 땀샘으로 들어간다. 땀샘에서는 땀을 많이 만들어 내면서 혈액이 표면으로 밀려나오게 되고 땀과 섞인 핏방울이 나온다.” (프레드릭 주지베 박사)

이것은 주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의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장엄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머물면서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가 여기에서 "Watch"로 사용하는 단어는 그리스어 어근 *gregoreuo* 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감시가 십자가형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반자 유다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경계"하여 고통의 시간에 그를 지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명령에서 감람산 설교

전체에 걸쳐 나왔던 동일한 주제인 “깨어 경계하라” 즉, 영적인 경계에 대한 요구를 볼 수 있습니다.

35 He went a little farther, and fell on the ground, and prayed that if it were possible, the hour might pass from Him. 36 And He said, “Abba, Father, all things *are* possible for You. Take this cup away from Me; nevertheless, not what I will, but what You *will*.”

Leaving the inner core of disciples alone Jesus goes off to pray. His posture is interesting and insightful. Normally Jews prayed standing with their faces and arms uplifted towards heaven. Here Jesus falls to the floor, an indication of His extreme distress. To throw yourself down at someone's feet is to put yourself completely at their mercy. Here our Lord places Himself entirely at God's mercy. His prayer or petition is that the full horror of the cross (the hour and the cup) might be spared Him. He then address God the Father in the most intimate terms as “Abba, Father.” I have heard that the term Abba being likened to the term “daddy.” There is some truth in this but, it is I think inadequate because the term “daddy,” at least in English is a rather childish form of address. Little children call their father's daddy, but when they are adults they call him dad. Abba is the Aramaic word for father and properly conveys the respect that a son should offer their father in a patriarchal family structure. It is not childish, but it is intimate.

It was not however the way up until this point in history that Jews addressed God the father. To use “Abba” was seen as being disrespectful. So Jesus here is introducing us to a new more intimate relationship that we can enjoy with God the Father.

Jesus plea is that there might be any other way to achieve their plan for salvation. This is a question that pastors are often asked. Wasn't there any other way, couldn't God have remedied the issue in some way so that Jesus didn't need to suffer and die? The answer is no, it had to be this way. How do I know this? Because God can only ever do what is right and best in every situation.

The truth is that God is in complete control of all things. Therefore all things, including the agony Jesus had to endure as well as the need for it could have been removed. All things are possible for the sovereign God of the universe. However Jesus willingly places Himself in submission to God's will. He will lay down His life in order to fulfil God's plan.

Why, we might wonder from a human perspective would He do this? The answer is simple yet profound. He desires that God's will be accomplished over and above what He wants. What a wonderful and instructive picture of prayer this gives us. When we speak to God in prayer we fervently make our wishes and desires known. Please, God do this for me, help this person, give insight and wisdom to me on this matter. But always we must acknowledge that it is not our will that should prevail but God's will. As we pray each week when we recite the Lord's prayer; “They will be done.”

Let us continue.

35 그러고서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의 때가 자기에 게서 지나가기를 빌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36**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핵심 측근 제자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의 자세는 흥미롭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얼굴과 팔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닥에 엎드리셨고 이는 그분의 극도의 고통을 나타냅니다.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그들의 자비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맡깁니다. 그의 기도와 간구는 십자가(시간과 잔)의 완전한 공포를 면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라고 가장 친밀한 표현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아바(Abba)라는 용어가 “아빠”라는 용어에 비유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지만 적어도 영어에서 "아빠 daddy"라는 용어는 다소 유치한 호칭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버지를 daddy 라고 부르지만, 어른이 되면 dad 라고 부릅니다. 아바(Abba)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람어 단어로, 가부장적 가족 구조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드려야 하는 존경심을 적절하게 전달합니다. 유치하지는 않지만 친밀합니다.

그러나 역사상 이 시점까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바 Abba”를 사용하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더욱 친밀한 새로운 관계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간청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죽지 않도록 하실 수는 없었나요? 대답은 '아니요'이고, 이 방법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오직 옳고 최선의 일만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그것의 필요성을 포함한 모든 것이 제거될 수 있었습니다.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왜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실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얼마나 훌륭하고 교훈적인 그림을 제공합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열망을 열렬히 알립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사람을 도와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 제게 통찰력과 지혜를 주소서. 그러나 항상 승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주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계속합시다.

37 Then He came and found them sleeping, and said to Peter, “Simon, are you sleeping? Could you not watch one hour? 38 Watch and pray, lest you enter into temptation. The spirit indeed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Jesus returns to the point He left the disciples expecting them to be in earnest and vigilant prayer. Instead, He finds them curled up and fast asleep. Let's be generous to the disciples. They have had a long day, it's now late at night. Perhaps they had intended to stay vigilant and in prayer, but in the cool and quiet garden under the stars they had fallen asleep. It's probably an experience we have all had. Every time I go and watch a movie these days I end up falling asleep! Nice warm theatre, comfy chair, dimmed lights, I'm out like a light. It's an expensive nap.

The Lord Jesus is not impressed. In His moment of great agony He finds Himself alone. He singles out Peter for rebuke. We cannot be sure whether it was a harsh or a gentle rebuke. Peter who had shortly before boasted about how he would never deny Jesus is already failing Jesus. He could not even stay awake and watch for one hour. Jesus even reverts to his former name of Simon to emphasise his human frailty. He's sleepy Simon not Peter the rock.

The Lord then gives them all a warning. They are to watch and pray so that they do not fall into temptation. The verb tense used here for "watch" and "pray" indicate that this is an on-going command. We are to continually be in a state of vigilance and prayer. This is because as fallen human being the temptation to fall into sin is great. Even though we know it to be wrong, and may desire to avoid falling into sin the power of the flesh is strong. The desire to override our spiritual conviction and satisfy the flesh is often hard to resist. This is why we must watch carefully to avoid sinful situations. In all matters we must seek the wisdom and guidance of the Holy Spirit. Only with His help can we avoid temptation becoming sin. Let us continue.

37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네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38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차려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열렬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오십니다. 그 대신 그분은 그들이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제자들을 관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긴 하루를 보냈고 지금은 밤이 늦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깨어서 기도할 생각이었겠지만, 별빛 아래 서늘하고 조용한 정원에서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겪어봤을 경험일 겁니다. 전 요즘 영화를 보러 갈 때마다 잠이 오네요! 멋지고 따뜻한 극장, 편안한 의자, 희미한 조명, 나는 불빛이 꺼지듯이 저도 잠이 듭니다. 비싼 낮잠이죠.

주 예수님은 실망하셨습니다. 큰 고통의 순간에 그분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분은 베드로를 지목하여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가혹한 책망인지 부드러운 책망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랑했던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인간적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전 이름인 시몬으로 부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는 반석인 베드로가 아니라 졸고 있는 시몬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여기서 "깨어"와 "기도하다"에 사용된 동사 시제는 이것이 계속되는 명령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계속 깨어 기도하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으로서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죄된 본성의 힘은 강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확신을 무시하고 죄된 본성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은 종종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주의 깊게 살피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도움으로만 우리는 죄로 이끄는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39 Again He went away and prayed, and spoke the same words. 40 And when He returned, He found them asleep again, for their eyes were heavy; and they did not know what to answer Him. 41 Then He came the third time and said to them, “Are you still sleeping and resting? It is enough! The hour has come; behold, the Son of Man is being betrayed into the hands of sinners.

Jesus once again is overcome by great sadness. He leaves the disciples to again go off and pray. His prayer is the same as before. That God the Father find some other means to provide salvation, that there may be some way to take this suffering from Him.

We may wonder why the Lord Jesus would pray the same thing again, especially as He knows that it is not part of God's plan to remove this cup of suffering from Him. However when we think like

this we are missing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of prayer. We don't simply pray to God in order to acquire our list of wants or desires. Prayer is not a vending machine.

Prayer is a way to acknowledge our feelings and put them into words. We do this so that God can work in us and transform our hearts so that they are more in line with His will. Therefore as Jesus demonstrates here there is nothing wrong with going to God and expressing our fears or concerns regarding following Him.

When He returns He once again finds the disciples sleeping. The cycle is repeated on a further occasion. The disciples are unwilling, or unable to stay awake. Their “flesh” has gained complete control. In verse 40 they “**did not know what to answer him.**” Their guilt is clear, and they are without excuse. No doubt when they thought back on this moment later they felt great sadness and shame at having let down the Lord Jesus. It is a lesson that we too can learn. Let us stay focused and committed in our loyal service to our saviour.

But now the time for prayer and quiet reflection is over. The word “enough” here is difficult to translate. It could mean “Is the time far off?” or “What’s the use?” or “My betrayer is paid,” but in this context I think it is best to understand it as “It is settled.” The hour is upon Him. He is about to be betrayed, arrested, tortured and crucified. He is falling into the hands of sinners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for the benefit of sinners (you and me). Let us conclude today's passage.

39 예수님이 다시 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0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몹시 피곤하여 또 자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몸둘 바를 몰랐다. 41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갈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서는 또 다시 큰 슬픔에 휩싸이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떠나 다시 나가서 기도 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예전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제공할 다른 방법을 찾으시고, 이 고통을 그분에게서 거두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께서 똑같은 기도를 하셨는 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특히 이 고난의 잔을 그에게서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소망의 목록을 얻기 위해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그분의 뜻에 더 일치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 여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를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돌아오셨을 때 그분은 다시 한 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사 이클은 다음에 반복됩니다. 제자들은 깨어 있을 의지가 없거나 단순히 육체적으로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성”이 완전한 통제권을 얻었습니다. 40 절에 보면 그들은 “무엇으로 대답해야 할지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분명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나중에 이 순간을 돌이켜보면 주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것에 대해 큰 슬픔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구주를 향한 충실한 봉사에 집중하고 헌신합시다.

그러나 이제 기도하고 조용히 묵상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충분하다"라는 단어는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멀었나?"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무슨 소용이 있나?" 혹은 "나의 배반자가 대가를 받았다"일 수도 있지만, 이 맥락에서는 "다 해결됐다"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그분께 이르렀습니다. 그는 곧 배반당하고,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될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들(당신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죄인들(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넘겨지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2 Rise, let us be going. See, My betrayer is at hand."

The time for sleep is over. It is time for Jesus to go forth to fulfil God's divine plan. The peace and tranquillity of the garden is about to be shattered as Judas leading a large group of man enter the garden. That will be the subject of next Sunday's sermon.

42 일어나거라, 가자.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이 가까이 왔다."

잠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신성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나아가실 때입니다.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정원으로 들어가자 동산의 평화와 평온이 깨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다음 주일 설교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hree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저는 오늘 성경 구절에 대해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1 Our strength comes from God

How strong are you? Perhaps you possess great physical strength. Maybe you can work a long hard day without feeling great exhaustion. Perhaps you are mentally strong. Nothing sways you from a particular course of action. But let me ask you a question. How strong would you be if real Christian persecution came your way? We are fortunate that we live, at least for now in a place where we are not persecuted. But if you did face trouble how would you respond?

Peter was a physically and mentally strong individual. He boldly asserted that whatever came he would not fall away. His support for Jesus would remain unwavering. The problem was that the foundation for his confidence was himself. He trusted in his own courage and strength. He would fall very badly. It is a reminder to us all that our own strength will always fail us. No matter how strong we think we are it will never be sufficient. That is why we must look to God to supply the courage and strength we need. It is only God who can supply for all our needs in every situation.

당신은 얼마나 강한가요? 아마도 당신은 엄청난 체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큰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길고 힘든 하루를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신적으로도 강할 것입니다. 어떤 행동 과정에서 당신을 좌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 기독교 박해가 당신에게 닥친다면 당신은 얼마나 강할 것입니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박해를 받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와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지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자신감의 기반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용기와 힘을 믿었습니다. 그는 매우 심하게 넘어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힘이 항상 실패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2 A people who rest and sleep

Perhaps it a symptom of my age but as I look back I cannot help but think things are progressively deteriorating. When I think back to my parents, and grandparents days it seems, at least to me that people worked harder, took more pride in things and were motivated to make things better. That is certainly true in Korea. The “miracl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that took place after the Korean war stands as a testimony to that generation. Would the young Koreans of today achieve the same results? I'm highly sceptical. Today's young people often seem unfocused and ill-disciplined.

Sadly the same can be said for the church. Things are progressively deteriorating. The church should be full of alert and dynamic people. People eager to feast on God's Word and then go out and use it to change the world. But the reality is that the church is full of sleepy and heavy eyed people. Whilst Jesus was away the disciples were called to stay alert and pray. They all dozed off. Now whilst Jesus is away we are called to mature as believers so that we can go out and share the gospel. How are we doing?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 시절을 되돌아보면, 적어도 저에게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사물에 대해 더 많은 자부심을 갖고, 사물을 더 좋게 만들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일어난 한국의 '기적'적인 변화는 그 세대의 증언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젊은이들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종종 집중력이 없고 훈육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슬프게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깨어 있고 역동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졸고 눈이 무거운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그들은 모두 졸았습시다. 예수님께서 떠나 계시는 동안 우리는 신자로서 성숙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 To pray is to surrender to God's will

When we communicate to God through prayer what are we doing?

All too often our prayers are just us running through our daily wish list. There is nothing wrong with, and in fact we should pray for those around us and our daily lives. We should pray that God provides for us and keeps us safe. But as Jesus showed in today's passage to pray is really to surrender to God's will. It is to come into line with what He desires and wants. We may think we know best, but we are mistaken. Our place in prayer is to ask and surrender, to give the situation over to God and trust him to work out his will, not to demand that he accede to our requests. Let us then learn to pray as Jesus did.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매일의 소망 목록을 말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과 일상 생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뜻하고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뜻을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착각입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하고 순복하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지, 그분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